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공정 주택법을 약화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반대하는 주 전체 공정 주택 이니셔티브를 시작

페어 하우스링 매터스 뉴욕 이니셔티브는 공정 주택 규정을 파괴하고 인종, 민족, 장애 및 기타 보호 제공에 기반한 차별을 심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예정.

이니셔티브는 공정 주택 기회의 장벽에 대한 공개 피드백을 요청할 예정

7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설문 조사는 [여기](#)에서 이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내 차별받는 생활 방식과 주택의 차이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 전체 노력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주정부는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이 요구하는 공정 주택 규정을 파괴하는 연방 정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페어 하우스링 매터스 뉴욕(Fair Housing Matters NY)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Trump 행정부가 유색, 노인 지역사회, 장애인, 성소수자(LGBTQ), 여성 가장 가족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칠 퇴행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Obama 시대의 규정을 따르고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에 해를 끼치는 차별의 근본, 역사적 원인 및 주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정 주택법을 지킬 것입니다."

현재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 기금을 받는 주, 지방 정부 및 공공 주택청에 매 3~5년마다 공정 주택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AFFH) 규정의 구성 요소로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차별받는 생활 방식 및 빈곤이 집중된 영역을 줄이고, 주변 지역의 불평등한 기회 접근성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늘리고, 공정 주택 집행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분석 및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Trump 행정부는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요구 사항의 기반을 없애고 차별, 통합 및 전체적인 인종 차별을 무시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주택 도시 개발부의

차별받는 생활 방식과 주택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해결하는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요구 사항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뉴욕은 [페어 하우스링 매터스 뉴욕](#) 이니셔티브와 Obama 규정에 의해 정해진 표준과 절차를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지역사회 지도자, 비영리 단체, 주택 전문가 및 주민들에게 주택 선택 및 주택 기회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 설문 조사의 결과는 공정 주택을 평가하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보고서에 통합되며 주택의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정책을 안내할 것입니다. 설문 조사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웹사이트에서 7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https://hcr.ny.gov/fairhousingmattersny#surveys>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웹사이트에는 거주자를 위한 설문 조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비영리 주택 전문가, 지방 정부 및 저렴한 주택 개발자를 포함한 주택 이해 관계자를 위한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설문 조사는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및 벵골어로 번역됩니다.

설문 조사 외에도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는 이번 여름과 가을에 일련의 포커스 그룹 및 주민 참여 세션을 개최하여 공정한 주택 선택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주택 사무국(Fair and Equitable Housing Office)은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타 데이터의 피드백을 분석하여 주택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를 개발합니다. 초기 보고서의 초안은 2021년 초에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공정 주택법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2019년 주택 안정성 및 임차인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을 통해 역사적인 세입자 보호를 제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소득 차별의 원천을 금지하고, 주 기금을 받은 주택 공급업체가 부정적 신용 또는 사법 관련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지원자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하우스링 매터스 뉴욕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에 걸쳐 불평등한 주택과 차별받는 지역사회를 초래한 수십년 간의 차별적 정책을 뒤바꾸려는 임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평등을 분석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피드백을 듣는 것은 이해를 증진하고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때 직면하는 장벽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공정한 주택에 대한 이 행정부의 차별적 공격에 반대하며 국가를 선도하는 Cuomo 주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임시 커미셔너 Johnathan J.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장애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교육, 좋은 직업,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 살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공정한 주택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권국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cr.ny.gov/fairhousingmattersny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